

성결대학교 신대원생 전원에 장학금 확대 지급

신대원 신입생 100%, 목회학석사 70%, 신학석사 50%



교단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신대원생 장학금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 교단총무 권순달 목사는 내년도 급년 입시결과 보고, 교수 총연, 신대원 장학금 문제를 위해 성결대학교를 방문하였다. 이 자리에서 성결대학교 정희석 총장은 내년도 성결신대학원 장학금 지급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2025년도 신대학원 신입생 100%, 재학생 목회학석사(M.Div) 70%, 신학석사(I.H.M) 50% 수준으로 책정하였다. 단서조항은 예수교대한성결교회에서 사역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로 하였다. 신학생 전체 학생에게 장학금이 지급된다는 소식은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단 전체의 희소식이이다. 특히 교단의 목회자들을 위해 I.H.M 장학금도 기존 30%에서 예상 소수 전 입사역자에게는 50%로 확대하였다. 기존 목회자들의 지식적 향상과 학업을 연장하고자 하는 차세대 담임목회자의 부담을 덜어 학업의 기회가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전원에게 70% 장학금, I.H.M 학생들에게 50% 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보고하였다. 타 교단 신대원 중에는 전액장학금을 지급하는 학교들이 있어, 신학생 감소와 더불어 신대원생 유치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신입생 100%, 재학생 70%의 장학금 지급 결정으로 인해 큰 산 하나를 넘는 셈이다. 권순달 총무는 “너무 반가운 소식이다. 1차 회의 때 외국인 학생 유치를 통해 방법을 찾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 나라를 방문하며 수고해 주신 총장님 이하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신입생 장학금을 넘어 전체 신대원생의 장학금 지급 소식이 교단의 기쁨이다. 이제 총회는 지난 회의에서 말했듯이 모판과도 같은 학부 신학생과 예비 신학생인 종교대학생들에게 투자하여 교단 신학생들을 길러내겠다. 어려웠던 시대에 교단과 학교가 서로 도우며 상생하는 아름다운 동행을 실현하자”며 감사를 전했다.

지난 여름, 권순달 총무는 성결대학교 정희석 총장, 오현철 신학대학장, 박정수 신학대학원장과 회의를 열어 교단의 현인인 신학생 수급, 신대학원 장학금, 신학부 교수총연 문제에 대해 1차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신대원 신입생 첫 학기 장학금 지급이 아닌 전체 재학생 장학금 지급을 목표로 대안을 찾고자 제안하였다. 이에 정희석 총장은 해외학생 유치를 통해 학교 발전과 장학금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했으며, 정희석 총장은 취임 후 일본, 베트남, 중국, 몽골 등 아시아권 대학교를 방문하며 외국인 학생 유치를 공을 들여왔다. 그 결과 내년도 성결대학교에 입학하는 외국인 학생 수가 550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정희석 총장은 “급년 수시 전체 경쟁률이 12대1로 좋은 성과를 거뒀다. 특히 신학과 지원률이 4.5대 1로 목회자 추천과 미래인재 추천을 통한 신학생 후보들이 많이 지원하였다. 하나님의 은혜이다. 그리고 지난 여름 학교 발전과 교단의 숙원인 신학생 장학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550여 명의 외국인학생을 유치하게 되었다.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대원생 신입생 전액 장학금, 재학생

오랜 숙원 사업이었던 신대원 장학금 문제가 교단의 관심과 총장의 노력이 만 들어낸 열매이다. 이번 장학금 지원책 마련은 갈등과 반목이 아닌 협력과 상생을 통해 위기에 대처하는 좋은 결과물이라 할 것이다. 누구 하나의 노력으로만 해결할 수 없는 과제를 교단과 학교, 교회와 서로 도우며 함께 대처할 때 일단 지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아직 100% 장학금 지원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그 역시도 지혜를 모으는다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일을 모범 삼아 교단과 신학기관이 서로 협력과 존중으로 모두가 행복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교단으로 성장하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총회 제공]

등촌제일교회, '2025 다함축제' 개최

시민과 함께 나누는 문화의 장



서울서지방회 등촌제일교회(이병현 목사)가 11월 15일~16일까지 '2025 다함축제'를 열고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문화의 장을 펼쳤다. 서울시 후원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무료 행사로, 음악과 퍼포먼스, 메시지를 통해 사랑과 희망을 나누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날인 15일 '다함께 가족음악회'는 교회 3층 대예배실에서 열려, 세대를 아우르는 다양한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뜨거운 호응을 얻었다. 원더걸스 출신 선예, 감성 보컬 지두, 힙합 듀오 마이티마우, 바리톤 김주백, 복합화 전문가 안재우, 풍선 공연 달인 박종현,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등이 무대에 올라 관객과 호흡하며 풍성한 볼거리를

선사했다. 둘째 날인 16일에는 '사랑의 메시지'를 주제로 가수 유열이 삶의 여정을 나누며 찬양과 메시지로 감동을 전했고 배우 겸 감독 추상미는 신앙과 삶의 경험을 진솔하게 들려주었다. 이병현 목사는 "다함축제는 신앙을 넘어 문화를 나누는 자리"라며 "교회가 지역사회를 향해 사랑의 손길을 전하고, 시민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희망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돼, 종교적 울타리를 넘어 시민들이 문화로 소통하고 화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등촌제일교회 제공]



창동교회, 선교대회 개최 '열방을 주님의 품으로!'

창동교회는 11월 16일부터 23일까지 '열방을 주님의 품으로!'라는 주제로 선교대회를 개최했다. 16일 온가족예배에서는 손영삼 목사(예수의교회)가 23년간 그리스 집시 공동체를 섬기며 복음을 전했던 사역을 소개하며 성도들의 선교의식을 일깨웠다. 19일 수요일예배에서는 이태희 목사(타이포천인대교회)가 국제거주 태국인들을 위한 사역을 전하며, 선교 대상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임을 강조했다. 21일 금요일성령집회에서는 정종현 목사(창동교회)가 교수 사역을 통해 해외 유학생을 제자로 세우는 현장을 소개하며, 캠퍼스를 통한 열방 선교의 가능성을 전했다. 23일 주일예배에서 서계원 목사(창동교회)는 선교사역에 사랑으로 동역할 것을 권면하며, 온 교회가

선교헌신을 작정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 약정된 선교헌금은 12월 중 선교위원회 심의를 거쳐 향후 2년간의 선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선교위원장 서성수 장로는 "선교사는 우리가 파송하는 사역자일 뿐 아니라, 교회 역시 보내는 선교사의 사명을 다시 확신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말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선교 후원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창동교회는 2년 주기로 선교대회를 진행하며 해외선교, 북한선교, 이주민선교, 국내선교, 지역전도 등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할 동역자들을 세우고 있다. 한편 창동교회 선교위원회는 현재 인도네시아 사역을 준비할 선교사를 찾고 기도하고 있다.

서울북지방회주재지자 지용혁 목사

AI 시대의 종교, 인간과 로봇의 미래를 묻다

성결대 영안신학사상연구소, 로버트 M. 제라시 박사 초청 강연

성결대학교 영안신학사상연구소 소장 박정수 박사는 11월 17일(월) 오전 10시 성결대 학습정보관 아랍국제회의실에서 '인공지능 시대의 종교: 인간과 기계 지성의 미래를 묻다'를 주제로 미국 북서대학의 종교학자 로버트 M. 제라시 박사를 초청해 국제석학 초청 강연을 열었다.

제라시 박사는 강연에서 "AI 시대 종교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은 점점 비현실적"이라며, "종교가 지속되는 이유를 탐구하는 과정이 인간 이해에 도움이 되며, 이는 로봇의 미래를 예측하는 데도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또한 "AI가 인간과 동등한 존재가 된다면 로봇 역시 종교적 실천에 참여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간 또한 이에 따라 종교적 관점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학계에서는 이미 로봇의 권리·존엄성, 로봇이 인간의 정치·신학적 이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논의하고 있으며, 이러한 논쟁은 로봇 자체보다 인간이 가진 종교적·윤리적 가치관을 더 분명히 드러낸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술과 종교가 결합해 초월성·불멸에 대한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시도가 앞으로 더욱 뚜렷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한 제라시 박사는 윤리적 로봇 설계뿐 아니라 "우리는 무엇이 우리를 더 나은 존재로 만드는가"라는 질문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간의 공감 능력과 정의를 향한 실천이 중요하며, 로봇이 진정한 지성과 의식을 갖추게 된다면 그들도 현대의 영적 탐구에 참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찬을 맡은 성결대 신학대학 황은영 교수는 이번 강연의 핵심이 로봇의 구원이 아니라 로봇을 바라보는 인간의 신학적 자화상에 있음을 짚으며, 기술과 신앙이 서로를 비추는 '이중의 거울' 역할을 한다고 평가했다. 이날 강연은 패널 토론과 학생 질의응답으로 마무리됐다.

[성결포럼 제공]

성결포럼, 제123차 성결포럼 성축회 개최

영적 올림과 삶의 지혜 나누는 귀한 시간 가져



성결포럼(대표회장 정부기 목사)은 11월 24일(월) 오전 10시 45분,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예미향교회에서 제123차 성결포럼 성축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깊은 영적 올림과 실질적인 삶의 지혜를 나누는 귀한 시간으로, 많은 참석자들에게 큰 감동과 도전을 선사했다.

1부 예배는 김영기 목사의 사회, 조두천 목사의 기도, 김창지 장로의 특송, 노희석 목사의 '지금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때' (호 10:1~12)라는 제하의 설교 및 축도가 있었다.

이어 진행된 2부 성결포럼은 '성서 속 120세 장수의 비밀'을 주제로 성결

포럼 총재이자 예미향교회 담임 정부기 목사가 감사로 나서 성경적 통찰을 바탕으로 현대인들이 주목해야 할 건강과 장수의 비결, 그리고 그 속에 담긴 지혜를 풀어냈다.

이날 포럼은 객석을 가득 메운 열기 속에서 92세 고령의 목사님 부부도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어 감동을 더했다. 모든 순서를 마친 참석자들은 오찬을 나누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최고의 보양과도 같은 건강식으로 최종 마감하며 영적, 육체적 양식을 모두 채우는 풍성한 하루였다.

[성결포럼 제공]

성결을위한기도모임, 제64회 기도모임 개최



성결을위한기도모임(대표회장 라건국 목사)이 11월 20일(목) 오전 11시, 총회본부 대예배실에서 '제64회 성결을 위한 기도모임'을 갖고 교단의 발전과 산하 교육기관, 국가를 위해 기도했다.

이날 예배는 김영기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라건국 목사의 기도 후 전 총회장 문정민 목사가 '바리새와 같은 지도자' (눅 11:19~26)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어 전 총회장 노희석 원로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특별기도 시간은 전진우 목사의 찬양인도로 시작되어 양민명 목사와 라건국 목사의 인도 △사역자들의 건강,

영적성장, 섬기는 교회를 위해 △총회를 위해 △성결대학교를 비롯한 모든 교육기관을 위해 △성결을 통한 부흥성장이 이루어지길 위해 △해외에서 복음사역을 전하는 이들을 위해 △국가를 위해 각각 뜨겁게 기도했다. 특별기도는 성결포럼 전 총재 이봉준 원로목사의 마무리 기도모임이었다.

성결을위한기도운동은 지난 2010년 9월 14일 시작했으며, 교단과 교회, 목회자들의 순수한 성결운동과 기도운동을 목적으로 기도 캠페인을 꾸준히 확산해 나가고 있다.

민족복음화 인천본부 발대식, 라건국 목사 본부장 취임

"복음 처음 들어온 인천에서 민족복음화 새 불길 타오를 것"



(사)민족복음화운동본부가 지난 17일 인천광역시 316교회에서 '인천광역시 본부 발대식 및 본부장 취임감사예배'를 드렸다. 이번 발대식은 2027년에 예정된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를 향한 전국 조직 확립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대표본부장 박용배 목사, 총괄본부장 라건국 목사, 상임본부장 박병철·박홍부·이준남·홍철웅·김선강·한정관 목사들이 이날 취임했다. 총괄본부장 라건국 목사는 "140여 년

전, 인천 제물포항을 통해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상륙했다. 그 복음이 다시 인천에서 타오르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인천본부는 성령대부흥의 진원지가 될 것이다. 성령의 불길은 타오르고, 부흥의 불길은 전국으로 퍼져가는 통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예배는 라건국 목사의 인도로 시작하여 박병철 목사(상임본부장)·박홍부·이준남·홍철웅·김선강·한정관 목사들이 이날 취임했다. 총괄본부장 라건국 목사는 "140여 년

노윤식 목사, 온세대자녀축복부흥성회 · 서울특별시성시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 취임



온세대 자녀축복부흥성회와 서울특별시성시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 취임식이 11월 20일 주님앞에제일교회에서 거행됐다. 1부 예배는 심재섭 장로(교육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되었으며, 여호수아 찬양단의 찬양, 이승권 장로(인사위원장의 기도와 코람테오 성가대의 특별 찬양)가 있었다.

이날 설교한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박재신 목사는 역대하 20:5-12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 권세'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봉헌송은 다같이 찬양단이 '약한 나

로 강하게'를 찬양하였고, 다음세대를 포함한 온세대 축복인수기도는 인수위원단이 진행했다.

2부 취임식은 강환준 장로(서울특별시성시화운동협의회 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박재신 목사는 노윤식 목사가 서울특별시 성시화운동협의회 대표회장 위촉패를 전달하며 성시화운동의 사명을 재확인했다.

이어서 한국성시화운동협의회 이사 이선 목사의 격려사, 양천구 성시화운동협의회 사무총장 고신원 목사의 축사와 테너 존노의 축하공연이 있었다.